

공약실천 이행평가 최우수

남원시, 3년 연속 역대 최고 성적 거둬... 시민소통 실시로 좋은 평가 이끌어내

이환주 남원시장이 민선6기가 출범 하면서 내 건 공약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원시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가 실시한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평가' 결과, 3년 연속 최우수(SA)등급으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

또, 재정관리분야에서도 재정계획 및 예산확보가 잘 관리된 최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는 민선6기 남원시정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14년 7월 민선6기 출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 동안 추진한 공약이행자료를 전국 231개 기초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요구하고, 대학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체 평가단 60명이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선거공약내용과 공약실천 계획,

공약이행 실적 등 자료를 모니터링 및 분석하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공약이행완료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 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등급은 점수에 따라 5개(SA, A, B, C, D) 등급으로 차등 부여하고, 종합평가 결과 5개 분야 합산 점수가 85점 이상인 지자체에게는 최우수 등급인 'SA'를 부여했다.

이번 평가에서 특히 남원시는 공약 이행률에서 94%로 SA등급을 받았으며 (SA :서울(80.62%), 대구(84.30%), 인천(65.45%), 광주(76.00%), 대전(74.67%), 울산(73.79%), 경기(72.53%), 강원(72.02%), 충북(57.28%), 충남(74.56%), 전북(75.03%), 경북(61.46%), 경남(67.02%)), 재정확보를 또한 96.7% (재정집행률 93.3%)로 전국 최우수 성과를 거두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특히 이행완료도와 목표달성도 노력에서 이환주 시장에게 높은 점수를 줬으며, 시장공약 추진상황을 자문·평가해 온 점과 시장공약사항 조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배심원제 운영을 높이 평가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남은 임기 기간에도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민선 6기 시정목표인 '사랑의도시 건강한 남원'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시는 공약이행상황을 매분기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매년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현재 남원시는 민선6기 공약사항 5대분야 30개사업 중 24개 사업 완료 6개 사업 정상추진, 추진률은 94%를 보이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100년 먹거리 성장거점 개발 사업 본격화

순창군, 발효산업·관광 문화 융합된 관광시설 추진

순창군이 지역의 100년 먹거리를 핵심 사업으로 삼고 성장거점 개발 사업에 나섰다.

군은 2일 고추장민속마을 주차장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선도지구와 참살이 발효마을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황숙주 군수와 김중섭 군의회 의장, 김송일 전라북도행정부지사, 최영일 도의원, 기관단체장과 군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투자선도지구와 참살이 발효마을의 성공을 기원했다.

투자선도지구와 참살이 발효마을은 민속마을 주변 44만5,053㎡에 다양한 산업지원 시설과 관광시설을 만들어 대한민국 장류산업의 이끌고 발효와 관련된 대규모 관광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2021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자를 포함해 총 1,047억원을 투자한

다는 대규모 청사진 계획을 확정된 상태다.

당초 630억원에서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시설 등 발효관련 기능이 강화돼 사업 규모가 대폭 커졌다.

규모부터 군역사상 가장 큰 역대급 사업으로 평가 받는다. 특히 관련예산의 국비확보 성공과 민간투자 MOU 체결 등으로 사업 성공가능성도 대폭 커진 상황이다.

순창군이 그리는 청사진의 특징은 발효산업과 관광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성장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다. 우선 산업화 시설로 배양실, 품질관리실, 제품저장실 등을 갖춘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시설이 들어선다. 발효미생물 산업화용 생산시설과, 장류 및 절임원료농산물 저장창고, 기업체 마케팅을 지원하는 B2B 지원센터도 주목받는 산업화 시설이다.

관광분야는 더욱 풍성하다. 고추를 중심으로 한 100개 다년생 식물원, 농산물을 활용한 세계발효마을 체험농장, 전통누룩체험관, 월드푸드 사이언스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관광객 유치에 앞장선다.

추억의 전통식품거리도 조성해 발효관련 먹거리와도 연계한다. 발효테라피센터와 다목적 광장 등 휴식 기반시설도 주목받는 시설중 하나다.

군은 그동안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추진의 기반을 다졌다.

이날 기공식에서 황숙주 군수는 "투자선도지구와 참살이발효마을 사업은 순창장류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발효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단초를 만드는 사업이다"면서 "산업과 관광, 생산과 소비가 융합된 거점을 만들어 순창이 세계적 발효산업의 중심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흘날리는 벚꽃을 맞으며...

6일부터 8일까지... 버스킹 공연·프리마켓 행사

살랑 불어오는 바람결에 봄기운이 가득하다. 가지개를 켜 벚꽃나무들은 팝콘 터지듯 일제히 꽃망울을 터트린다. 세상을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일 벚꽃잔치는 이제부터가 하이라이트이다.

남원 관한루원 앞 요천 일대는 벚꽃나무가 지천이다. 꽃잎이 만개하면 벚꽃 터널이 장관을 이루고, 벚꽃 잎이 눈발처럼 흩날리는 산책로에는 로맨틱한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이번 주말 4월 6일부터 8일까지 남원 요천 일대는 흘날리는 벚꽃잎을 맞으며 버스킹 밴드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공간으로 변신한다. 벚꽃길을 따라 심수정 앞, 요천 쪽방길, 승월교를 거닐다 보면 곳곳에서 다양한 버스킹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국민민속국악원의 '달리는 국악 무대', MLK의 '마술' 공연, 밤하늘 별빛의 '어쿠스틱 기타' 공연, 연극단 하자의 '뮤지컬' 공연 등

주말 내내 눈과 귀가 즐거운 공연들이 펼쳐진다.

여기에 40여 일 남은 제88회 춘향제의 축제 분위기를 더해줄 사전홍보 마케팅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프리마켓, 페이스페인팅, 포토존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리플릿, 기념품 배부 등 춘향제 홍보활동을 펼쳐 성큼 다가온 춘향제 분위기를 미리 느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벚꽃은 '절세미인'이라는 꽃말을 지니고 있다. 꽃말처럼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벚꽃을 보고 있으면 누구나 설레는 감정을 느끼게 한다. 봄날은 사랑에 빠진 춘향과 몽룡처럼 사랑을 꽃피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순간이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흐드러지는 봄의 선물, 요천 벚꽃과 로맨스를 꿈꿔보는 것이 어떨까?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재정집행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

임실군이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을 걸여 부쳤다.

신속한 재정집행은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2일 신속집행 대책 보고회와 토론회를 열고, 전 부서별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조기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신속집행 대책보고회는 부서장이 사업별로 신속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계획, 부진 사유 등의 보고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토의했다.

군의 올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은 총 2,566억원 중 58%인 1,462억원이다. 군은 상반기 내 집행을 목표로 전 행정

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특히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부서장을 최종 책임자로 지정하고 주1회에 걸쳐 집행액과 집행률을 수시 점검기로 했다. 또한 공사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해결하는 등 신속집행에 철저를 기해 서민경제 체감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해 규모가 있는 사업은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지침에 맞춰 조기발주를 서두르고, 긴급입찰과 선금집행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창출지원과 서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둔 조기집행 계획을 세워 모든 행정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

임실군이 영농규모는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한다.

강소농 육성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농가 지원이나 교육에서 벗어나 농가 스스로의 자립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2일 군은 임실군청 5층 농민교육장에서 심 민 군수와 강소농 교육희망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갖고, 교육사업의 주요 추진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교육은 강소농 교육사업의 추진 방향을 비롯, 6년간 강소농의 발전, 그리고 강소농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동계면, 무사고 안전 기원

동계면과 동계면 주민들이 지난 1일 동계면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예방 안전기원제를 열고 주민안전 및 통행차량의 무사고 안전을 기원했다.

이날 안전기원제는 최근 잇따른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동계면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환기시키고, 각종 재해로부터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행사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한 동계면 각사회단체장 및 회원과 동계면 주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교통사고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을 함께 기원했다.

한편 대형교통사고는 지난해 7월과 2016년 5월경에 각각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지난 3월 11일 2명의 사망사고와 3월 22일 국도13호선의 오토바이 사망사고 그리고 3월 25일 대형트럭 전복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한바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인월면 대박농장, 독거노인 듀유 지원

인월면에서 양돈업을 하고 있는 대박농장(대표 장근조)에서 저소득 독거 노인 60명에게 듀유를 1인당 2박스씩 총 120박스(환가액 : 150만원)를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최근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자녀들의 생활이 어렵고 멀리 떨어져 있어 고향에 있는 부모님 집 방문이 거의 없는 어르신들에게 위로움을 달래주고 영양섭취가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위료가 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전달 방법은 인월면 독거노인관리사 2명이 매일 대상자 가정을 방문할 때 마다 안부확인 및 정서지원 방문시 전달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